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사회공헌활동 인식과 복지의식과의 관계 연구

- 제주지역 금융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송 양 신

2020년 2월

사회공헌활동 인식과 복지의식과의 관계 연구

- 제주지역 금융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진영

송양신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송양신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9년 12월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erception and Welfare
Consciousness

- Focused on the Financial Companies' Workers in Jeju -

Yangshin Song

(Supervised by Professor Jinyoung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Welfare

2020.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2020. 2.

Major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분석틀	3
1) 연구문제	3
2) 분석틀	3
II. 이론적 배경	5
1. 사회공헌활동	5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	5
2) 사회공헌활동의 개념	7
3) 사회공헌활동의 목적	10
4) 사회공헌활동의 유형	12
5) 사회공헌활동 인식	14
2. 금융기업과 사회공헌활동과의 관계	15
1)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발전 동향	15
2) 제주지역 주요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현황	17
3. 복지의식	20
1) 복지의식의 개념과 중요성	20
2) 복지의식의 차원	21
4. 선행연구 검토	23
III. 연구방법	27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7
2. 측정도구	28
3. 자료분석 방법	30

IV. 연구결과	3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33
3.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비교	39
4.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의식 비교	47
5.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55
6.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공헌활동 인식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57
V. 결론 및 제언	61
1. 연구결과 요약	61
2. 제언	64
참고문헌	68
부록	75
Abstract	81

<표 차례>

<표 1>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의	8
<표 2> 사회공헌활동의 이론적 모델	10
<표 3>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세부 분류	12
<표 4> 사회공헌활동 운영방식별 세부 분류	13
<표 5> 제주지역 A 금융기업 사회공헌활동 실적	18
<표 6> 제주지역 B 금융기업 사회공헌활동 실적	19
<표 7> 제주지역 C 금융기업 사회공헌활동 실적	19
<표 8> 복지의식 측정 영역	22
<표 9> 설문지 문항의 구성 및 신뢰도	30
<표 1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2
<표 11> 조사대상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상황	33
<표 12> 조사대상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태도	34
<표 13> 조사대상자의 사회공헌활동 만족도에 대한 인식	35
<표 14> 조사대상자의 사회공헌활동 효과성에 대한 인식	36
<표 15> 조사대상자의 사회공헌활동 지지도에 대한 인식	36
<표 16> 조사대상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37
<표 17> 조사대상자의 공공복지 확대에 대한 인식	38
<표 18> 조사대상자의 복지비용 부담 의향에 대한 인식	38
<표 19> 성별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 검증	39
<표 20> 연령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 검증	40
<표 21>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 검증	41
<표 22> 근무기간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 검증	42
<표 23>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 검증	43
<표 24> 자원봉사·기부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 검증	44
<표 25>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 검증	45
<표 26> 자원봉사·기부 현재 지속 여부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 검증	46

<표 27> 성별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 검증	47
<표 28> 연령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 검증	48
<표 29> 교육수준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 검증	49
<표 30> 근무기간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 검증	50
<표 31>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 검증	51
<표 32> 자원봉사·기부 경험 유/무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 검증	52
<표 33>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 검증	53
<표 34> 자원봉사·기부 현재 지속 여부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 검증	54
<표 35>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55
<표 36> 복지정책 견해에 대한 영향	58
<표 37>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에 대한 영향	59
<표 38> 복지비용 부담 의향에 대한 영향	60

<그림 차례>

[그림 1] 분석틀	3
[그림 2] Carroll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피라미드 모형	6
[그림 3] 국내 사회공헌활동 패러다임 변화	11

<국문초록>

사회공헌활동 인식과 복지의식과의 관계 연구
: 제주지역 금융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송양신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지도교수 김진영

본 연구는 금융기업 종사자들의 사회공헌활동 인식이 그들의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의 사회공헌활동 발전방향을 파악하여 향후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제주지역에 소재한 금융기업 가운데 금융기업의 제주지역 근무자가 250명 이상인 금융기업 4곳을 선정, 총 232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빈도분석, t-검정, F검정(ANOVA,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공헌활동 인식과 복지의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는 사회공헌활동 참여태도, 만족도, 효과성, 지지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는 사회공헌활동 효과성, 지지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복지비용 부담 의향에 대해서는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간, 참여태도, 만족도, 지지도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금융기업 종사자의 복지의식에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복지비용 부담 의향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에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공헌활동의 하위변인 중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효과성, 참여태도가 유의미한 수

준에서 복지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비용 부담 의향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 특성의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공헌활동 인식의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간, 사회공헌활동 지지도로부터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복지 확대 지지에 대한 인식에서는 일반적 특성 및 사회공헌활동 인식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업 종사자의 복지의식 향상과 관련하여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발전 방향 및 내실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한다.

금융기업 측면에서는 금융기업 종사자들이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사회공헌활동 문화 조성 및 사회공헌활동의 질적 성장에 집중하여야 한다.

금융기업 종사자 측면에서는 종사자 스스로 사회공헌활동에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하고자 노력하며 직장 동료들 간에서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격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측면에서는 금융기업들은 지역사회·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경쟁 기업, 타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NGO 등과 연계한 협력적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공헌활동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단순 자선활동 정도로 생각해왔으나 오늘날의 많은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효과적인 경영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인식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민 의식 변화, 시대 가치 변화, 기업의 복지 참여 필요성 증가 등으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등 일반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기업들도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업 사회적 책임과 일반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금융기업들은 일반기업들과 달리 공공적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영리를 추구하는 이중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업들은 공공재적 사회적 책임과 함께 일반기업들처럼 이윤 추구, 주주이익 극대화 등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까지 실천하며 일반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2017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3개 은행의 최근 5년간 사회공헌 실적은 2013년 6,106억원에서 2017년 7,417억원으로 21.4% 증가했다. 이 외에도 서민금융 확대, 공익 연계 금융상품 개발 등 사회책임 금융 실천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금융기업들은 사회공헌전담부서 설립, 전사차원의 봉사단 운영,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한 사회봉사활동 추진 등 사회공헌활동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에 집중하며 사회공헌활동의 방향을 재확립해 나가고 있다.

금융기업들의 이러한 변화는 사회공헌활동을 기업 차원에서의 단순 활동이 아닌 임직원들이 함께 사회문제 및 복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임직원, 기업, 사회가 함께 상생하고 성장해 나가는 방안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금융기업 종사자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금융기업들은 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수 참여자 표창 수여 등 사회공헌활동 참여 촉진 제도를 연구하고 있고 금융기업 종사자들 역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 사회공헌활동은 우리사회의 복지문화 성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사회적 움직임으로 국가 복지 발전과 국민 복지의식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 미치고 있다. 이에 금융기업의 종사자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것 역시 이들의 복지의식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하여 국민들의 참여와 역할이 점점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복지의식은 그 나라의 복지 정책 등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의 복지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복지국가 실현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기업의 구성원이자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인 기업 종사자들의 복지의식 증진 역시 지역사회 복지 향상은 물론 복지국가 실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공헌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공헌활동 인식이 복지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도 유의미하다는 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내실화 방안 및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분석틀

1)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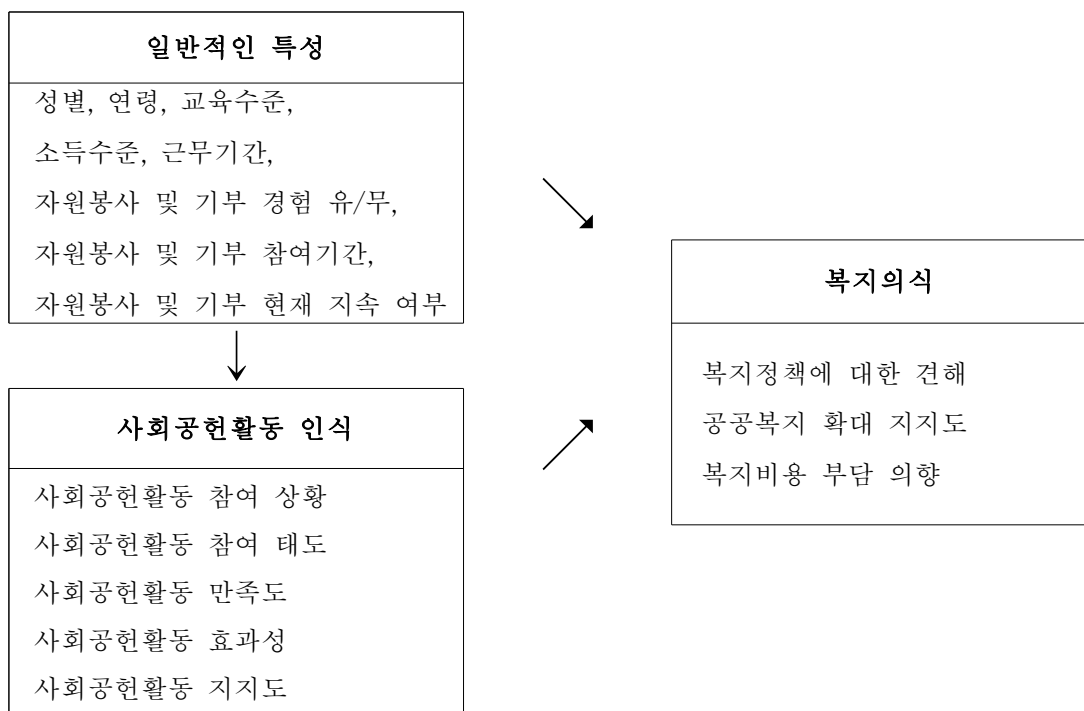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금융기업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사회공헌활동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금융기업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복지의식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금융기업 종사자들의 사회공헌활동 인식이 복지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분석틀



[그림 1]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은 설문조사를 통해 금융기업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공헌활동 인식이 그들의 복지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향후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발전 방향과 내실화 방안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일반적 특성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근무기간, 자원봉사 및 기부 경험 유/무,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기간, 자원봉사 및 기부 현재 지속 여부를 설정하였다. 사회공헌활동 인식의 하위변인으로는 사회공헌활동 참여 상황, 사회공헌활동 참여 태도, 사회공헌활동 만족도, 사회공헌활동 효과성, 사회공헌활동 지지도를 다루었다. 또한 복지의식의 하위변인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 복지비용 부담 의향으로 구성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공헌활동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

우리사회에서 사회공헌활동 개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선활동’ 등으로 중복되어 쓰이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 의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사회공헌활동 개념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930년대 몇몇 학자들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으며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man)’이라는 책(Bowen 1953)이 출간된 후부터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Bowen(1953)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가에게 주어진 사회 전체의 목적이나 가치에 알맞게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을 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에 옮길 의무라고 정의했다.

J. W. McGuire(1963)는 기업이 사회에서 경제적, 법제적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 중에서도 기업의 사회봉사를 강조했다. Sethi(1975)는 법률·경제적 의무 외에 사회규범과 가치, 사회 기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의무(Social Obligation),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그리고 사회적 대응성(Social Responsiveness)의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였다(장지우, 2018: 5에서 재인용).

학자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를 관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현재, [그림 2]와 같이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법률적·윤리적·자선적 4단계 모형으로 정리한 Carroll(1991)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Carroll(199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책임,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법률적 책임,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대되는 행동과 활동을 하는 윤리적 책임, 그리고 경영활동과 별도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선적 책임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2] Carroll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피라미드 모형



출처: Carroll. A(1991), 김지영(2009)에서 재인용

또한 Carroll(199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사회가 기업에 요구(Required)하는 수준,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는 기대(Expected)하는 수준, 자선적 책임에 대해서는 기대와 바람(Desired)의 수준으로 표현하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미를 구분하였다(백승범, 2007).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제표준화 기구 ISO에서는 2010년 ISO 26000을 발표하고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을 정의하였다. ISO 26000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고려하며 적용 가능한 법률과 일관성 있는 국제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조직 전반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이효정, 2012).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Porter(2011)의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이론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내

용으로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기업이 소속된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적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운영관행이라고 하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넘어선 공유가치창출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일수, 2015).

앞서 살펴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기업에 기대되고 요구되는 사회적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기업의 경영 활동에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환경적 관심사들을 반영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공헌활동의 개념

사회공헌활동은 앞서 살펴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한 형태이다. 오늘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표적 활동이라 볼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이 의미, 운영방법에서도 전통적 성향과 현대적 성향으로 뚜렷한 변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많은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산, 고용 등의 경제행위를 통해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업들은 사회적·환경적 변화들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폭이 훨씬 확대되었다(정무성, 2004). 즉, 사회공헌활동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기업들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함은 물론 임·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접근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의 개념을 살펴본 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Kotler(2006)은 사회공헌활동을 특정 사회문제나 공익 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현금 기부, 물품이나 설비 등의 현물 기증, 기업의 특정 기술이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주장하였다. 박종각(2013)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본래의 경영활동과 별도로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이 수행해야 할 책임 중에서 기업의 고유활동과 무관하게 여러 분야에서 자발

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Kotler(2006)과 박종각(2013)의 연구 외에도 사회·환경·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자는 좀 더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국·내외 연구자들이 제시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의

연구자	정의
Stroup et. al. (1987)	사회적 압력에 반응하는 소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안에서 기업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해결에 동참하는 것
와타나베 카즈오 (1996)	사회문제에 대한 일시적 대응을 넘어서 민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기업의 비영리적 활동
박찬영(1997)	기업이미지 형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에 기여하는 활동
김연신(2000)	사회공헌 활동 초기에 기업이 축적한 재화나 부를 사회적 환원이라는 의무적 차원에서 기존의 축적된 것을 베푸는 입장으로 사회 요구나 외부적 압력 등에 의해 수행되는 여러 가지 자선적 활동
Wulfson(2001)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이란 순수한 사회공헌과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기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
이성록(2002)	구성원들이 개인 소유의 자원과 기업의 인적 자원을 자발적으로 지역 사회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문철수(2004)	기업과 지역사회간의 상호작용으로 기업이 지역민과 지역의 여러 조직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함으로써 명성을 얻게 되는 활동
김이환(2005)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사회 일반의 요구나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기업 활동의 규범적 체계
정윤석(2006)	이윤 창출의 원천인 사회에 대해 이익의 일부를 환원함으로써 기업의 도덕적 의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기업이 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활동
김창수(2006)	기업의 축적된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에 책임을 실현하는 일련의 활동
최유균(2006)	기업의 재정적, 비재정적인 다양한 기업 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
전원우(2007)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미지와 인식도를 높이고 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이홍일(2009)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행위로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연구자	정의
김희경(2010)	기업이 소비자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하여 전체 사회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고 꾸준한 관심 및 노력으로 행하여지는 활동, 또는 발생된 사회 문제를 솔선수범하여 해결하고 선도적 사회 문화의 주체 역할을 하는 활동, 그리고 소비자와의 이해관계 개선 및 지속적 관심 및 노력의 장기적 활동 등의 다양한 노력
권상봉(2013)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정부, 비영리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신시장 진입과 개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활동
조한숙(2013)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경제적인 성과를 사회 속에 환원하고 또 자신의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진정한 기업시민으로 거듭나는 것
김일수(2015)	사회공헌활동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진정한 기업시민이 되는 것. 즉, 사회공헌은 기업이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지역 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사회적 활동
강인석(2016)	기업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기업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물질·인적 자원을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

출처: 강인석(2016), 안재현(2016)에서 재구성

이외에도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최근 연구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기업이 사회 문제들에 있어 책임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문경원, 2011).

위 연구자들의 정의내린 사회공헌활동을 정리해보면 사회공헌활동이란 기업이 지역사회를 통해 이루어 낸 이윤 및 가치를 사회에 환원하고 기업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물질·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회적 활동이다.

이제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활동이며 지역사회와의 공생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가 되었다. 앞으로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목표와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trategy Philanthropy), 사회공헌활동 선진화에 초점을 두고 전개될 것이다.

3) 사회공헌활동의 목적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18 주요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추진 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점으로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를 선택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198개사 중 18개사에서는 세전 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기업들이 영리 추구를 벗어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목적에는 기업 이미지 마케팅 전략, 정치권 또는 소비자들의 압력, 기업 구성원의 사기고양 측면 등 아주 다양하다. 과거 많은 연구들 중에서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목적에 관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론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설명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이론적 모델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행동양식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2> 사회공헌활동의 이론적 모델

참여근거모델	내 용
신고전주의적/ 기업생산모델 (Neoclassical/Corporate Productive Model)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기본목적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 사회공헌활동의 성공여부는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관점
윤리적/이타의적 모델 (The Ethical Altruistic Model)	기업과 기업이 속한 사회는 상호의존적이며 경영자 입장에서 기업의 윤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자선적 목적을 추구 할 수 있다는 관점
정치적 모델 (The Political Model)	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성장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간 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유경쟁체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견제하고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존하자는 관 점
이해당사자 모델 (The Stakeholder Model)	종래의 기업책임이란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을 뜻했으나 현재는 넓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관점 ※ 이해관계자란? 주주, 종업원, 고객, 일반시민, 지역사회를 포 함하는 넓은 의미로서 서로 영향을 주기도하고 받기도하는 복 잡한 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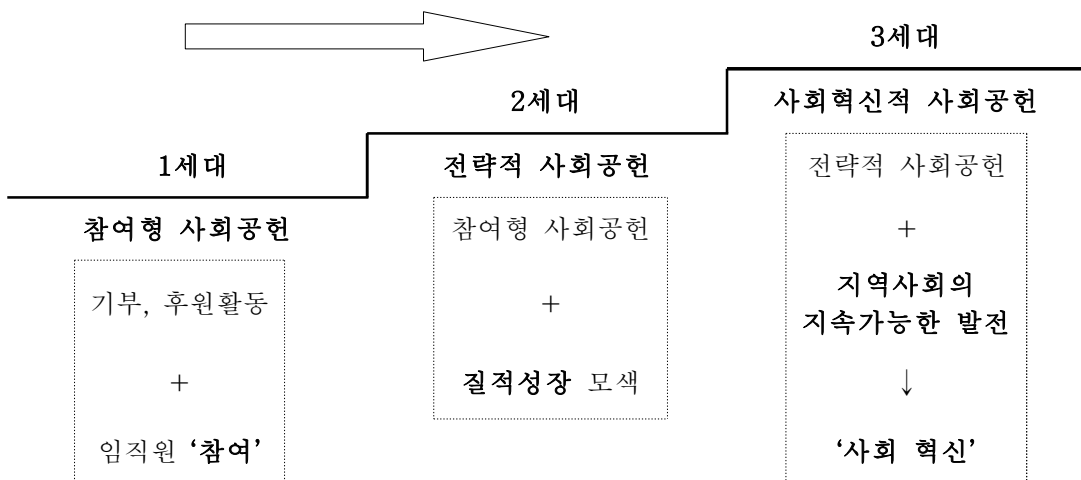
참여근거모델	내 용
지역사회 투자모델 (CCI: Corporate Community Investment)	기업세계화(Globalization)와 IT 혁명을 시대적 특징으로 하는 신경제세대의 기업 사회공헌을 설명하는 모델 글로벌 차원에서 '윤리경영'을 추진 중인 OECD, ILO 등 국제 기구들이 제시한 이론으로 지역사회를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포함시키는 관점

출처: 정무성(2004), 이효정(2012)에서 재구성

5가지 이론적 모델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사회투자 모델'과 '이해관계자 모델'에 입각한 사회공헌활동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Andrew Wilson(2000), 최혁준(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사회공헌활동 목적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Andrew Wilson(2000)은 사회공헌활동 발전 단계를 1단계 '기업자선활동(Philanthropy)'에서 2단계 '전략적 사회공헌활동(Strategic Philanthropy)'으로 발전하며 최종적으로는 다양한 협력 추진방식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투자(Community investment) 활동'의 3단계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고 최혁준(2010) 또한 국내 사회공헌활동의 패러다임 변화를 [그림 3]과 같이 3단계로 설명하였다.

[그림 3] 국내 사회공헌활동 패러다임 변화



출처: 최혁준(2010), 이효정(2012)에서 재구성

즉, 오늘날의 사회공헌활동은 추진 목적에 따라 단순 기부활동에서 기업경영 활동의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사회투자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4) 사회공헌활동의 유형

과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일시적·자선적 기부’ 행위가 주를 이뤘으나 현재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은 ‘정기적, 제도적 기부’ 방향으로 그 특징이 변하고 있고 동시에 그 형태가 현금 및 현물 기부(기술지원 및 시설제공 등 포함), 인적 봉사활동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황보람·김환희, 2010). 사회공헌활동 유형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기업의 특성, 활동 지역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연구 자료들과 기업·기관 등에서 발행한 사회공헌보고서 등에 따르면 <표 3>와 같이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취약계층 지원), 교육·학교·학술, 문화예술·체육, 의료·보건, 환경보전, 응급·재난 구호, 지역사회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3>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세부 분류

유형	세부항목
사회복지	사회구성원이 일정한 생활수준 및 개선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지원, 주거불안 개선, 보육 지원 등)
교육·학교·학술	학교 건립, 교육기자재 지원, 장학금 및 학술연구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문화예술·체육	문화·예술·체육계의 인재양성 및 산업융성, 대중의 문화·예술·체육 향유를 위한 지원(문화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관련 단체 행사 지원, 전통문화 보존 및 문화인 활동 지원)
사회통합	국내 이주민·난민·탈북민과 그 가정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지원
환경보호	환경단체 활동 지원, 환경보전 캠페인, 재활용 캠페인 등
의료·보건	국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 지원(병원 건립 및 운영 등)
과학·기술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의 최적화된 활용 지원 등
응급·재난구호	수해복구, 구호물품 및 성금기탁, 재해예방 및 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유형	세부항목
안전	사고/재난의 예방 및 대응훈련, 아동 대상 안전교육 등
포상	군인·군인가족·국가유공자 및 소방관·경찰 등 사회적 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포상, 기념사업, 처우개선 등)
지역상생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시민활동 지원, 농·산어촌 지원, 도시재생 등)
창업 생태계 구축 · 일자리 지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해외 지원	해외 대상 사회공헌사업

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2018)에서 재구성

우리사회에서 사회공헌활동 유형에 관한 명확한 틀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기업들은 과거의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의 기본적인 사업 분야를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세분화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18 주요기업의 사회적 가치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의 유형을 운영방식에 따라 <표 4>와 같이 분류하기도 하였고 이외에도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¹⁾에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표 4> 사회공헌활동 운영방식별 세부 분류

유형	세부내용	
자율 프로 그램	자체 사업	외부공익법인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 단독 운영하는 공익사업 - 자체 사무국을 두고 직접 진행하는 사업 - 기획사나 대행사 등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
	파트 너십	기업의 다양한 내부자원을 투입, 외부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
간접프로그램 (일반 기부)	외부의 기존프로그램에 대한 후원·협찬 일반적 재해구호금과 같은 비지정성 기부금 등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2018)에서 재구성

1)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2015년 UN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본 연구자는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살펴보고자 은행연합회²⁾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7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함께 살펴본 바, 은행연합회에 소속된 은행들은 금융기업의 특성을 접목시켜 지역사회·공익, 학술·교육, 메세나·체육, 서민금융, 환경, 글로벌 등 6개 유형을 선정해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은행연합회에 소속되지 않은 금융기업들 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한 바, 금융기업별 특성에 맞춰 공익사업활동, 기부협찬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었고 사회공헌재단을 운영해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기업들도 찾아 볼 수 있었다.

5) 사회공헌활동 인식

사회공헌활동 인식은 기업 종사자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하여 갖는 다양한 생각, 신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업 종사자들의 사회공헌활동 인식에 영향을 주는 활동요인으로 기업 직원 참여 봉사활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공헌활동 인식을 연구함에 있어 기업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에 주목한 사유는 선행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서구원·진용주(2008)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 유형 중 기업의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을 가장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인식한다고 하였으며 향후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을 할 때 임직원을 활용한 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민정(2005)의 연구에서도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은 사회공헌활동의 한 방법으로 시혜적 차원의 기부나 보여주기식 행사의 사회공헌활동이 아닌 적극적인 실천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의 《2018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2017년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봉사활동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직원의 52.8%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임직원 1

2)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 전국 국내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은행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22개 금융회사, 국내에 사무소를 둔 38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들이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은행업무 개선을 통한 금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이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https://www.kfb.or.kr>>

인당 연간 평균 봉사활동 시간은 7시간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기업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직원 참여 봉사활동은 그 어떤 사회공헌활동보다도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를 제공함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직원 참여 봉사활동은 기업 종사자들의 사회공헌활동 인식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활동으로 볼 수 있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기업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기업 자원봉사활동은 기업의 사회공헌, 사회참여, 사회봉사의 일부분일 뿐이며 기업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 자원봉사활동이 기부활동보다 기업의 이미지 제고, 종업원의 조직몰입도 증가 등과 같이 효과가 큰 활동으로 주목받으며 점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이홍일, 2009).

기업 종사자들의 정확한 사회공헌활동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사회공헌활동 경험보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업 종사자의 사회공헌활동 인식을 파악함에 있어 직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직원 참여 봉사활동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2. 금융기업과 사회공헌활동과의 관계

1)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발전 동향

금융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일반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금융은 독과점적인 규제산업으로 정부의 보호와 배려가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재 성격이 강해 금융사업 자체가 사회적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박종각, 2013). 즉, 금융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일반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달리 공공재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금융기업의 사회적 책임 동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겪은 국내 금융 산업의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이후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유럽발 금융위

기, 국내 저축은행 사태 등 위기가 계속되어 왔다. 반복되는 금융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금융기업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IMF 이후 국내 은행들은 부실은행 퇴출, 은행 간 합병, 해외매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2000년대 들어 다시 늘어난 금융부실 역시 공적자금 투입, 금융지주회사 통합 등 일련의 경영개선 과정을 걸치면서 금융기업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금융기업의 수익규모가 늘어났으며 수익의 향상으로 사회공헌활동에도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금융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금융기업들이 위기극복 과정을 거치면서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해 왔다. 금융기업들은 금융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신뢰 회복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결합한 새로운 방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시하게 되었다(윤재숙 2011: 1-2에서 재인용).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8개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통합실적이 3,512억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5,923억원으로 68.6% 증가했다. 또한 2017년에 사회공헌 통합실적은 7,417억원으로 2010년과 비교하여 25% 증가했다.

최근 금융기업들은 공공재적인 사회적 책임은 물론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 과거 자선적 측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오던 사회공헌활동이 경영성과, 금융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투자’로 활용되고 차별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로 확대되면서 금융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융기업들은 사회 책임 금융 실천을 위하여 금융 본업과 연계한 서민 금융지원³⁾,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등급 향상 및 우대금리지원, 사회공헌 연계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 본업과 별도로 금융기업별 특화 사회공헌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네트워크(정부·지역사회·기업·NGO 등 이해관계자) 연계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현안들을 파악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서민금융지원은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과 동일 개념으로 영세민,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을 도울 수 있도록 자금과 사업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실시하는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이다.

또한 금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세계 각국의 정부, 국제기구, 금융 및 일반 기업, 시민사회 등이 협력하여 이니셔티브(Initiative)들을 구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FI)⁴⁾, 세계은행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⁵⁾ 등을 들 수 있다.

2) 제주지역 주요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현황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소재한 금융기업 중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3곳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A 금융기업은 사회 책임 금융 실천을 위하여 금융취약계층 대출 지원, 청년창업자 육성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제주교통복지카드 사업 업무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03년에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봉사단을 결성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1부점 1사회 봉사단체 결연사업,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청소년 경제교육 및 멘토링 봉사활동 등이 있다.

A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전 직원이 급여액에서 0.5%를 매월 공제하여 적립되는 기금(연 1억여원)과 연 10억원 이상의 기부금 출연으로 마련되며 최근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물적 지원은 물론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제주지역 A 금융기업의 종사자들의 참여로 실시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는 지역사회·공익·환경 분야 활동들로 직원 봉사단 활동 참여, 취약계층·복지시설 방문 봉사, 환경정화활동 등이 있다.

제주지역 A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동 실적은 <표 5>와 같다.

4)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이하 UNEP FI)는 유엔 환경 계획(UNEP)과 금융부문 간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전 세계 대표적인 은행, 투자펀드사, 보험사 등 200여 금융기업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UNEP FI는 금융기업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이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은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경우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원칙(협약)이다.

<표 5> 제주지역 A 금융기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백만원, 명)

연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 인원 수	주요 활동
2014년	1,241	2,930	- 1부점 1사회봉사단체 결연 사업 -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사업 -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 - 지역사회/공익, 서민금융, 학술/교육,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 분야 등
2015년	1,026	3,109	
2016년	1,030	3,261	
2017년	1,581	3,281	
2018년	1,474	-	

주1) A 금융기업의 홈페이지 및 은행연합회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주2) A 금융기업에서는 2018년 자원봉사 참여인원 수와 관련하여 주 52시간 근무제 등 사회적 이슈 등으로 집계하지 않았음

B 금융기업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운동·교육운동·윤리운동을 주제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운동에는 자활지원금융프로그램,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운동에는 협동·경제 멘토링 활동을 하며 윤리운동에는 위기가정 생계비·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난방용품 지원, 헌혈캠페인, 직원 참여 봉사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B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기금은 과거에는 각 조합별 출연으로 마련되어 왔으나 2016년부터는 중앙회에서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으로 기금 모금처를 일원화하여 개인(종사자), 단체, 법인(조합)들이 수시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사회공헌재단으로 모인 기금은 각 지역에 구성된 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은 물론이며 소외계층 지원,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전액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 B 금융기업에서 종사자들의 참여로 실시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은 봉사단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소외계층 무료급식 봉사, 김장봉사, 취약계층 생필품 등 지원, 난치병 학생 지원 활동, 헌혈 캠페인 등이 있다.

제주지역 B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적은 <표 6>과 같다.

<표 6> 제주지역 B 금융기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백만원, 명)

연도	지원금액	자원봉사 참여 인원 수	주요 활동
2014년	282	575	- 봉사단 지역사회 봉사활동 - 자활지원금융프로그램 - 지역아동센터 결연 멘토링 사업 - 위기가정 긴급 생계비, 의료비 지원 - 소아암 아동 지원 헌혈캠페인 - 취약계층 난방용품 전달 등
2015년	358	616	
2016년	424	1,055	
2017년	445	1,394	
2018년	517	1,456	

주1) B 금융기업 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와 B 금융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C 금융기업은 농업·농촌의 복지증대와 서민, 소외계층,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 서며 나눔 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부문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학금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술·교육지원과 문화예술 및 지역축제 등 메세나 부문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봉사단을 중심으로 농촌 일손 돕기, 청소년 공부방 만들기, 취약계층 물품 지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재능나눔 봉사활동으로는 금융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실과 합창단 운영, 청년 취업 지원 및 특성화고 취업 지원 멘토단 운영, 농촌지역 독거어르신을 위한 말벗서비스 등이 있다.

C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기금은 직원 기부 참여와 기부금 출연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제주지역 C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적은 <표 7>과 같다.

<표 7> 제주지역 C 금융기업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명)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원봉사 참여 인원수	1,034	2,030	1,315	1,707	1,377
주요활동	- 직원 봉사단 활동 및 재능기부 활동, 서민 금융 대출 지원 - 금융교실 운영, 문화예술 및 지역축제 지원, 환경 정화 활동, 헌혈 등				

주1) C 금융기업의 홈페이지와 C 금융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회공헌활동 지원금액에 관한 정보는 제공받지 못하였음

3. 복지의식

1) 복지의식의 개념과 중요성

의식(consciousness)은 현실에서 체험하게 되는 모든 경험 또는 자각하고 있는 정신현상으로서 마음의 인식작용이라는 과정적 측면과 그러한 인식의 결과로 생기고 축적되는 마음의 인식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식은 인간의 행위와 연결되는 행동성향이라는 의미에서도 태도라는 개념도 함축하고 있다(김경동, 1992; 김상균, 1994; 우아영, 2000; 이부영, 2013).

복지의식(welfare consciousness)은 복지인식(welfare perception), 복지태도(welfare attitude) 등으로 구분 또는 혼용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상당수의 기존 연구들이 복지를 둘러싼 신념, 가치, 행동성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복지인식에 대한 개념을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의식작용이나 주관적인 판단 그 자체로 바라보고 있다.

서대석(2013)은 복지의식을 크게 사고, 감정, 인식, 가치, 그리고 신념과 같은 내적인 의미와 행동적 반응성향, 태도와 같은 실천의지,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김상균·정원오(1995)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의식으로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제도, 혹은 사회복지체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지향이나 태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세희·문영규(2015)는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가치와 행동을 아우르는 태도로 보았고 양옥경(2002)은 복지제도에 대해 그 시대의 사회구성원들이 가지는 가치관과 태도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용어로 보았다.

즉, 복지의식을 광의의 개념으로써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복합적인 가치체계이자 사회제도나 복지에 대한 태도와 행동 지향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최균·류진석, 2000; 정세희·문영규, 2015; 이주희, 2017; 이소리 2017).

국민들의 복지의식은 복지정책의 변화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시대적 흐름, 사회적 상황 등에 의해 국민들의 삶의 방식과 사회의식에 변화가 생겼으며 국민들의 복지의식 역시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복지 정책 또한 함께 변화해 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궁극적으로 복지국가 형성 및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복지의식은 복지와 관련된 사회현상에 대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집단적 의식으로써 그 사회의 복지제도 내용과 형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구성원들이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으면 복지확대를 지지하고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으면 복지정책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류만희·최영, 2009). 즉, 국민들의 복지의식 수준을 파악하는 과정은 사회제도, 복지비용, 재분배,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 전반적인 사회적 의견을 파악하여 복지정책을 수립하거나 복지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이중섭, 2009; 이주희, 2017).

본 연구에서는 복지의식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닌 인식,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복지의식의 차원

복지의식은 개인의 복지 관념을 넘어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적, 사회적 인식, 가치관, 태도이며 단일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복지의식을 이해하거나 측정하기 위해서는 복지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차원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복지의식의 개념 정의 외에도 복지의식의 차원, 즉 구성요소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균·류진석(2000)은 가치차원, 태도차원, 복지책임 인식과 실천의지 간의 결합된 상태로 표출된다고 하였으며 오양래(2015) 역시 복지의식은 가치와 태도, 복지책임과 실천의지 측면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을 중심으로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 재정부담 의사, 복지주체에 대한 태도, 정책평가에 대한 인식, 성장과 분배에 대한 중요성 등 다른 차원의 인식들을 추가하여 복합적인 구성으로 복지의식을 연구하고 있다(이현주 외, 2013).

또한 복지의식은 하위영역별 또는 구성범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Taylor-Gooby(1985)는 복지국가의 정당성, 소득재분배, 복지비용 및 조세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태도로 규정했으며 Coughlin(1980)는 복지의식의 내용이 자유주의·보수주의·집단주의·개인주의·사회보장·노동윤리 등 한 사회의 가치와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복지의식을 ‘친 복지(pro-welfare)’ 혹은 ‘반 복지(anti-welfare)’로 구분하였다.

이 외에도 국내 많은 연구에서 복지의식의 측정 영역에 관하여 다양하게 구성, 측정하고 있어 선행연구를 통해 각 연구별로 복지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영역을 <표 8>과 같이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8> 복지의식 측정 영역

연구자	복지의식 측정 영역
김상균·정원오 (1995)	복지와 관련된 9개 영역(의료,교육,장애,실업,조세,주택,자선사업,평등,복지와 근면성)의 찬성정도, 세금증액에 대한 찬성정도
우아영(2000)	복지책임주체, 사회적 형평성과 평등성,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정부역할, 복지항목별 복지재정, 사회보장제도의 보험료 인상, 추가세금징수의 여섯 가지 영역
최균·류진석 (2000)	복지책임주체,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 납부, 복지예산 확충, 복지의 사회적 효과, 빈곤에 대한 인식, 평등 현실 등 6개 영역
이성균(2002)	국가의 복지책임 지지도: 복지대상자(노인, 장애인, 여성가장, 소년소녀가장, 빈곤층, 실업자)의 복지향상의 책임주체
류진석(2004)	국가에 의한 복지기능의 정당성, 국가의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비용 부담의 수용성, 복지제도에 대한 선호성, 그리고 복지제정 확충에 대한 정당성 등 다섯 가지 영역
주은선·백정미 (2007)	평등에 대한 태도, 공공복지 지지도, 조세추가부담 의사
이중섭(2009)	각 복지정책의 영역별(국민연금, 교육, 주거지원,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생활지원, 장애인생활지원, 가족지원, 실업/고용보험) 지출의견
이아름·김사현 (2010)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복지영역별 지지도(노인·장애인·빈곤층 생활지원·실업대책·가족지원과 같은 범주형 복지영역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보편적 복지영역으로 구분), 증세태도
오단이·김사현 (2012)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
서대석(2013)	평등에 대한 태도, 사회복지 영역별 확대에 대한 지지도, 복지확대에 따른 세금증가 동의 정도

연구자	복지의식 측정 영역
전주현(2013)	정부의 복지책임, 복지비용(복지재정지출, 복지비용부담), 복지기능, 복지유형에 대한 태도
이흥기·박영준(2015)	정부책임과 세금부담 동의를 묻는 증세태도, 복지정책의 원리에서 보편적 복지선호
오양래(2015)	성장분배· 정부지출 · 무상복지 · 복지증세에 대한 인식
정세희·문영규(2015)	복지 재정 확충에 대한 의견
손유진(2016)	정부의 복지책임,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태도
이주희(2017)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복지책임주체,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태도
한민희(2018)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보편 또는 선별적 복지대상 선정 여부, 복지비용 부담 수준에 대한 인식, 복지혜택과 복지 증세에 대한 인식

출처: 강인석(2016), 이주희(2017), 한민희(2018)에서 재구성

4. 선행연구 검토

우리사회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연구는 한국 기업의 공익활동 상황을 점검하여 향후 바람직한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실시한 정구현(1996)의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강인석, 2016: 19에서 재인용).

사회공헌활동과 복지인식의 관계를 알아보기에 앞서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하여 다루어진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미지, 신뢰도, 경영 성과 등 조직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와 지역사회, 소비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외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 외에도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 조직몰입, 참여만족도 등 조직 구성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공헌활동과 복지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사회공헌활동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복지인식을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본 연구자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논문으로 강인석(2016)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구성원들의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연구 1편과 유사 논문으로 백승범(2007)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종업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해나(2012)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노균환·유태용(2013)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 3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강인석(2016)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시행여부, 구성원들의 참여 여부,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참여시 만족도가 구성원들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특히 사회공헌활동 만족도가 높을 경우 사회공헌 지지도, 복지 및 평등인식,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 조세추가부담 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강인석(2016)의 연구를 제외한 3명의 연구자들은 조직시민행동의 범주에 복지의식을 명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이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3편의 유사 연구 결과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시민행동, 즉 조직 구성원의 개개인의 행동,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균환·유태용(2013)은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조직차원으로 사회에 대해 실시하는 일종의 시민의식이며 사회공헌활동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기업의 바람직한 행동으로 곧 개인 차원에서 조직구성원의 행동, 조직시민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밝혔고 백승범(2008), 김해나(2012) 역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조직 구성원이 인식할 때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정(+)의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이 개인의 의식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지만 복지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이로 인해 본 연구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공헌활동과 복지의식과의 관계를 뒷받침할 연구들을 확인하고자 사회공헌활동의 대표활동인 기부, 자원봉사활동과 복지의식과의 관계를 연구한 자료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자원봉사활동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청소년 및 대학생,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으며 관련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와 복지의식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채승희, 2002; 최은라, 2009)들과 달리 이부영(2013)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참여 동기와 몰입경험이 높을수록 복지의식이 높다고 주장하였고 권영순(2014) 역시 선행연구(이창은, 2003; 조미숙, 2007)와 같이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이 복지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윤정(2016) 또한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복지와 관련된 활동인 경우, 복지대상과 직접 접촉한 경우, 정기적으로 참여한 경우 복지의식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오양래(2015) 역시 기부행동과 복지인식의 하위요인(복지비용, 복지기능 비효율성, 복지책임 주체 등)의 관계를 파악하여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한민희(2018) 또한 선행연구(이창은, 2003; 조미숙, 2007; 이부영, 2013; 이윤정 2016)와 같이 자원봉사와 복지의식 간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마다 자원봉사활동과 복지의식에 관련하여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대체적으로 자원봉사와 복지의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가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결론지을 수 있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이 구성원들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고 사회공헌활동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강인석, 2016: 19-21에서 재인용).

사회공헌활동이 체계적으로 실시된 지 20여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기업 및 기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과거 ‘기부’ 중심의 선택적·소극적 사회공헌활동들이 최근에는 자원봉사와 공익사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까지 이뤄내는 능동적·필수적 사회공헌활동으로 변화했다. 더 나아가 미래의 사회공헌활동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전략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계획이 맞물려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안재현, 2016: 16-18에서 재인용).

이러한 변화는 우리사회가 사회공헌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 소속 구성원들의 관심과 적극적

인 참여로 가능한 것으로 사회공헌활동과 구성원들에 관한 연구가 참여만족도, 조직몰입 등에 그친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사회공헌활동이 사회적으로 우리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공헌활동이 사회 복지 측면에서 기업의 구성원들의 복지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사회공헌활동과 복지의식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했다.

기업의 구성원은 곧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공헌활동이 구성원들의 복지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결국 함께 상생하는 지역사회 구현은 물론, 복지국가 형성 및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어떠한 구성요인들이 구성원들의 복지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공공 복지 확대 지지도, 복지비용 부담 의향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사회공헌활동과 복지의식과의 관계 연구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구성원들의 복지의식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또한 제주지역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추세, 기업별 특징 등을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에서는 일반기업보다 공기업, 금융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 참여에 더욱 더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자는 금융기업이 공공적 역할 및 영리 추구라는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고 무형적 상품을 두고 기업 간에 경쟁을 하고 있다는 본질적 특성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금융기업 종사자들로부터 하여금 공기업 및 일반기업 종사자와 비교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금융기업이 가진 차별점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금융기업 종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제주지역 4개 금융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공헌활동 인식, 복지의식 변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자료 수집 방법은 제주지역 금융기업 사회공헌 관련 담당자를 통하거나 금융기업들을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2019년 7월 한 달간 설문지를 배포, 설문조사를 의뢰·실시하였다.

금융기업 선정에는 제주지역 내 지역본부 등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본점이 존재하고 해당 금융기업 제주지역 근무자가 250명 이상인 금융기업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선정 배경에는 본점은 서울에 위치하고 제주지역에 소규모 인원

으로 운영되는 금융기업의 경우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 비교 분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자의 판단 하에 조사대상을 조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여 267부를 회수하였으며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35명을 제외한 232부를 최종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2. 측정도구

1) 사회공헌활동 인식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헌활동 인식의 측정 영역으로 금융기업 종사자의 직장 내 사회공헌활동 참여 상황, 참여태도, 만족도, 효과성, 지지도 등 5가지를 선정하였다.

우선 사회공헌활동 참여 상황과 관련해 참여 여부, 참여기간, 참여횟수, 참여시간으로 세분화하여 세부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김현숙(2015), 백민경(2012), 이영주(2011)의 설문지 문항을 참고하여 5개의 변수를 채택,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금융기업 종사자들의 참여 태도와 관련된 항목은 서문식, 안진우(2008)가 개발한 서비스산업에서의 고객참여 측정도구를 수정 사용한 이경주(2015)의 설문지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4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공헌활동 만족도에 대한 척도는 Francies(1982)가 개발한 자원봉사 동기-욕구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박문성(2016), 권영순(2014), 최정우(2013), 이영주(2011)의 연구 설문지 문항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문항들을 선별·보완하여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공헌활동 효과성은 최정우(2013)의 설문 문항 중 ‘사회공헌활동과 관련 개인요인 인식도’ 질문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총 5문항을 사용하였고 사회공헌활동 지지도는 강인석(2016)의 설문지 문항 중 ‘사회공헌활동 지지도’와 관련된 2개 문항을 포함한 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2) 복지의식

본 연구에서는 복지의식의 측정 영역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 복지비용 부담 의향 총 3가지를 선정하였다.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에 관한 문항은 한국복지패널 11차(2016년) 부가조사(유형 5)의 설문문항 중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견해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에 관한 문항은 서대석(2013)의 설문지의 ‘사회복지 영역별 확대에 대한 지지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복지비용 부담 의향’에 관한 문항은 서대석(2013)의 ‘복지확대에 따른 세금 증가 동의 정도’ 문항과 한민희(2018)의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인 특성은 개인적 요인변수와 환경변수들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요인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이며 환경변수는 근속년수, 자원봉사·기부 경험 유/무,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 자원봉사·기부 현재 지속 여부이다.

설문지 구성은 강인석(2016), 김현숙(2015), 이영주(2011)의 설문지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7문항을 사용하였다.

<표 9> 설문지 문항의 구성 및 신뢰도

변수	세부내용	설문문항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일반적인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I. 1~6, 6-1~2	
	근무기간, 소득수준		
	자원봉사·기부 경험 유/무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		
	자원봉사·기부 현재 지속 여부		
사회공헌활동 인식 요인	사회공헌활동 참여 상황	II. 7, 7-1~3	.636
	사회공헌활동 참여 태도	III. 8-1~3	.861
	사회공헌활동 만족도	IV. 9-1~6	.847
	사회공헌활동 효과성	V. 10-1~5	.903
	사회공헌활동 지지도	VI. 11, 12, 13	.683
복지의식 요인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VII. 14-1~10	.884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	VIII. 15-1~10	.878
	복지비용 부담 의향	IX. 16-1~3	.777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PASW Statistics 18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대한 자료분석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공헌활동 인식, 복지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 사회공헌활동 인식, 복지의식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F-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회공헌활동 인식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및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0>과 같다.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남자 110명(47.4%), 여자 122명(52.6%)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30세~39세가 98명(42.2%), 40세~49세 60명(25.9%), 19세~29세 46명(19.8%), 50세~59세 28명(12.1%) 순으로 나타났고, 30~40대 연령층이 전체의 68.1%를 차지하여 중장년층 종사자들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은 대학 졸업이 161명(69.4%), 전문대 졸업 40명(17.2%), 고졸 이하 27명(11.7%), 대학원 이상 4명(1.7%) 순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의 종사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금융기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현 직장의 근무기간은 10년 이상~20년 미만이 56명(24.1%)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5년 이상~10년 미만 46명(19.8%), 1년 이상~3년 미만 44명(19.0%), 20년 이상 39명(16.8%), 3년 이상~5년 미만 25명(10.8%), 마지막으로 1년 미만 22명(9.8%) 순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소득수준은 4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이 72명(31.0%),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71명(30.6%), 6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41명(17.7%), 8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8명(12.8%), 1억원 이상 13명(5.6%), 2천만원 미만 7명(3.0%)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사회공헌활동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자원봉사·기부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문항에는 '있다' 155명(66.8%), '없다' 77명(33.2%)으로 나타났고, 참여경험이 있는 금융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참여기간을 파악한 결과 1년 이상~3년 미만 42명(27.1%), 1년 미만 35명(22.6%), 10년 이상 31명(20.0%), 3년 이상~5년 미만

29명(18.7%), 5년 이상~10년 미만인 18명(11.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지속 여부를 파악한 결과 ‘있다’ 110명(71.0%), ‘없다’ 45명(29.0%)으로 확인되었다.

<표 1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항목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110	47.4
	여자	122	52.6
	소계	232	100.0
연령	19세~29세	46	19.8
	30세~39세	98	42.2
	40세~49세	60	25.9
	50세~59세	28	12.1
	소계	232	100.0
학력	고졸 이하	27	11.7
	전문대 졸업	40	17.2
	대학 졸업	161	69.4
	대학원 이상	4	1.7
	소계	232	100.0
근무기간	1년 미만	22	9.5
	1년 이상~3년 미만	44	19.0
	3년 이상~5년 미만	25	10.8
	5년 이상~10년 미만	46	19.8
	10년 이상~20년 미만	56	24.1
	20년 이상	39	16.8
	소계	232	100.0
소득수준	2천만원 미만	7	3.0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71	30.6
	4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72	31.0
	6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41	17.7
	8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8	12.1
	1억원 이상	13	5.6
	소계	232	100.0
자원봉사·기부 참여 유/무	있다	155	66.8
	없다	77	33.2
	소계	232	100.0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	1년 미만	35	22.6
	1년 이상~3년 미만	42	27.1
	3년 이상~5년 미만	29	18.7
	5년 이상~10년 미만	18	11.6
	10년 이상	31	20.0
	소계	155	100.0
자원봉사·기부 현재 지속 여부	있다	110	71.0
	없다	45	29.0
	소계	155	100.0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1) 사회공헌활동 참여 상황

사회공헌활동 참여 상황의 세부요인으로 참여 유/무, 참여기간, 참여횟수, 참여시간을 포함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 조사대상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상황

변 수	항 목	빈도(N)	백분율(%)
참여 유/무	있 다	211	90.9
	없 다	21	9.1
	소 계	232	100.0
참여 기간	1년 미만	35	16.6
	1년 이상 ~ 3년 미만	43	20.4
	3년 이상 ~ 5년 미만	40	19.0
	5년 이상 ~ 10년 미만	49	23.2
	10년 이상	44	20.8
	소 계	211	100.0
참여 횟수	1 ~ 2회	84	39.8
	3 ~ 4회	58	27.5
	5 ~ 6회	35	16.6
	7 ~ 9회	9	4.3
	10회 이상	25	11.8
	소 계	211	100.0
참여 시간	5시간 미만	77	36.5
	5시간 이상~10시간 미만	71	33.6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41	19.4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9	4.3
	30시간 이상	13	6.2
소 계	211	100.0	

우선 제주지역 금융기업 종사자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있다’ 211명(90.9%), ‘없다’ 21명(9.1%)로 나타나 제주지역 금융기업 종사자의 상당수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공헌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부 참여 상황을 파악한 결과 참여기간은 5년 이상~10년 미만 49명(23.2%), 10년 이상 44명(20.8%), 1년 이상~3년 미만 43명(20.4%), 3년 이상~5년 미만 40명(19.0%), 1년 미만 35명(16.6%) 순으로 확인되었다.

참여횟수는 1~2회 미만이 84명(39.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3~4회 58명(27.5%), 5회 이상~6회 미만 35명(16.6%), 10회 이상 25명(11.8%) 마지막으로 7~9회 9명(4.3%)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시간 역시 5시간 미만 77명(36.5%)로 가장 높았고 5시간 이상~10시간 미만 71명(33.6%),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41명(19.4%), 30시간 이상 13명(6.2%),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9명(4.3%) 순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금융기업 종사자의 최근 1년 간 사회공헌활동 참여 횟수 및 참여시간을 살펴본 결과 종사자의 약 70%가 5회 미만, 10시간 미만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공헌활동 참여태도

사회공헌활동 참여태도는 사회공헌활동 내용 이해, 사회공헌활동 진행 탐색, 사회공헌활동 참여 정도, 사회공헌활동 관심 지속 여부 4개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5점 리커트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18점의 참여태도 수준을 보였다. 세부 요인별로는 사회공헌활동 참여 정도가 3.5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사회공헌활동 관심 지속 여부 3.38점, 사회공헌활동 내용 이해 2.89점, 사회공헌활동 진행 탐색 2.88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조사대상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태도

설문문항	빈도(N)	평균	표준편차
사회공헌활동 내용 이해	211	2.89	.843
사회공헌활동 진행 탐색	211	2.88	.853
사회공헌활동 참여 정도	211	3.57	.883
사회공헌활동 관심 지속 여부	211	3.38	.856
전체	211	3.18	.821

3) 사회공헌활동 만족도

사회공헌활동 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개인 삶의 변화 및 성장 계기,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 직장동료 지지·격려로 자부심 고취, 지역사회·사회문제 해결 참여, 새로운 지식·기술 습득, 포상 및 인사고과 등 실적 보상의 6개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5점 리커트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15점의 인식 수준을 보였고 세부 요인별로는 개인 삶의 변화 및 성장 계기 3.42점, 직장동료 지지·격려로 자부심 고취 3.39점, 지역사회·사회문제 해결 참여 3.34점, 새로운 지식·기술 습득 3.20점,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 3.14점, 포상 및 인사고과 등 실적 보상은 2.40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조사대상자의 사회공헌활동 만족도에 대한 인식

설문문항	빈도(N)	평균	표준편차
개인 삶의 변화와 성장 계기	211	3.42	.735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	211	3.14	.844
직장동료의 지지·격려로 자부심 고취	211	3.39	.775
지역사회·사회문제 해결 참여	211	3.34	.809
새로운 지식·기술 습득	211	3.20	.794
포상, 인사고과 등 실적 보상	211	2.40	.901
전체	211	3.15	.611

4) 사회공헌활동 효과성

사회공헌활동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참여자 변화, 대상자 만족, 타인의 삶 변화 유도, 지역사회 및 사회문제 해결, 사회 기여하는 가치 있는 활동의 5개 세부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5점 리커트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69점의 인식 수준을 보였다. 세부 요인별로는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활동 3.87점, 참여자 변화, 대상자 만족, 타인의 삶 변화 유도 3.66점, 지역사회·사회문제 해결 3.62점으로 나타났다.

<표 14> 조사대상자의 사회공헌활동 효과성에 대한 인식

설문문항	빈도(N)	평균	표준편차
참여자 변화	232	3.66	.353
대상자 만족	232	3.66	.664
타인의 삶의 변화 유도	232	3.66	.691
지역사회·사회문제 해결	232	3.62	.704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활동	232	3.87	.667
전체	232	3.69	.574

5) 사회공헌활동 지지도

사회공헌활동 지지도에 대한 인식은 사회공헌활동 지속 참여 의향,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필요 여부, 관리자 입장에서 사회공헌활동 시행 여부의 3개 세 부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5점 리커트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99점의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세부 요인별로는 총 관리자 입장에서의 사회공헌활동 시행 여부 4.09점,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필요 여부 3.98점, 사회공헌활동 지속 참여 의향 3.90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조사대상자의 사회공헌활동 지지도에 대한 인식

설문문항	빈도(N)	평균	표준편차
사회공헌활동 지속 참여 의향	232	3.90	.667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필요 여부	232	3.98	.803
관리자 입장에서 사회공헌활동 시행 여부	232	4.09	.582
전체	232	3.99	.540

6)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는 총 10가지 세부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 결과 5점 리커트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2.95점의 인식 수준을 보였다. 세부 요인별로는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3.37점,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 실시 3.12점, 여성 고용 확대 3.08점,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3.03점, 성평등 수준 향상 2.96점,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 거주 지원 2.93점,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 2.92점,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2.86점, 빈곤 예방 및 감소 2.72점, 실업에 대한 대응 2.50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조사대상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설문문항	빈도(N)	평균	표준편차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232	3.37	.843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232	3.03	.842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232	2.86	.891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	232	2.92	.815
빈곤 예방 및 감소	232	2.72	.798
실업에 대한 대응	232	2.50	.827
성평등 수준 향상	232	2.96	.920
여성 고용 확대	232	3.08	.826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 거주 지원	232	2.93	.770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 실시	232	3.12	.871
전체	232	2.95	.590

7) 공공복지 확대에 대한 지지도

공공복지 확대에 대한 지지도는 총 10가지 세부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 결과 5점 리커트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81점의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세부 요인별로는 무상 교육 복지 확대가 4.0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애인 생계 및 요양 지원 확대 4.01점, 노인 생계 및 요양 지원 복지 확대 3.94점, 무상 보육 복지 확대 3.93점, 무상 급식 복지 확대 3.91점, 무상 의료 복지 확대 3.88점, 빈곤층 최저생활보장 확대 3.77점, 여성 고용 활성화 및 남녀고용평등제

도 확대 3.67점, 무주택자 및 하우스푸어 지원 확대 3.50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실업자 구제 복지 확대가 3.4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조사대상자의 공공복지 확대에 대한 인식

설문문항	빈도(N)	평균	표준편차
무상 의료 복지 확대	232	3.88	.902
무상 교육 복지 확대	232	4.03	.847
무상 보육 복지 확대	232	3.93	.855
무상 급식 복지 확대	232	3.91	.914
실업자 구제 복지 확대	232	3.47	.857
노인 생계 및 요양 지원 복지 확대	232	3.94	.811
장애인 생계 및 요양 지원 복지 확대	232	4.01	.778
여성 고용 활성화 및 남녀고용평등 제도 확대	232	3.67	.928
빈곤층 최저생활보장 확대	232	3.77	.808
무주택자 및 하우스푸어 지원 확대	232	3.50	.868
전체	232	3.81	.593

8)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은 복지 확대에 대한 세금 증가, 모든 국민 대상 사회복지 복지비용 부담, 빈곤층 및 취약계층 대상 복지비용 부담의 3개 세부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5점 리커트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47점의 인식 수준을 보였다. 세부 요인별로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 대상 복지비용 부담 3.51점, 전 국민 대상 사회복지 복지비용 부담 3.50점, 복지 확대에 대한 세금 증가 3.40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조사대상자의 복지비용 부담 의향에 대한 인식

설문문항	빈도(N)	평균	표준편차
복지 확대에 대한 세금 증가 동의	232	3.40	.916
복지비용 부담 의향(모든 국민 대상)	232	3.50	.963
복지비용 부담 의향(빈곤층·취약계층 대상)	232	3.51	.837
전체	232	3.47	.754

3.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비교

금융기업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 인식의 세부요인을 참여태도, 만족도, 효과성, 지지도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F-검정)을 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분석 결과 참여태도, 만족도, 효과성, 지지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성별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 검증

항목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참여태도	남성	99	3.21	.721	.510	.611
	여성	112	3.16	.725		
만족도	남성	99	3.14	.548	-.158	.875
	여성	112	3.15	.664		
효과성	남성	110	3.68	.492	-.427	.670
	여성	122	3.71	.641		
지지도	남성	110	4.02	.587	.795	.428
	여성	122	3.96	.495		

2) 연령에 따른 차이

연령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0>과 같으며 분석결과 지지도(F=2.094, p=.036)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지도는 50세~59세가 4.17점, 40세~49세가 4.09점, 19세~29세 3.93점, 30세~39세 3.90점 순으로 대체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높았다.

<표 20> 연령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 검증

항목	연령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참여태도	19세~29세	42	3.18	.660	2.612	.052
	30세~39세	89	3.07	.707		
	40세~49세	55	3.20	.684		
	50세~59세	25	3.52	.869		
만족도	19세~29세	42	3.25	.583	.780	.506
	30세~39세	89	3.13	.622		
	40세~49세	55	3.07	.662		
	50세~59세	25	3.20	.495		
효과성	19세~29세	46	3.85	.619	1.561	.200
	30세~39세	98	3.63	.560		
	40세~49세	60	3.69	.577		
	50세~59세	28	3.66	.522		
지지도	19세~29세	46	3.93	.516	2.904	.036*
	30세~39세	98	3.90	.536		
	40세~49세	60	4.09	.546		
	50세~59세	28	4.17	.525		

*p<.05

3)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분석결과 참여태도, 만족도, 효과성, 지지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 검증

항목	교육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참여태도	고졸이하	24	2.95	.737	1.065	.365
	전문대졸	34	3.28	.792		
	대졸	149	3.19	.702		
	대학원이상	4	3.19	.688		
만족도	고졸이하	24	3.19	.634	1.086	.356
	전문대졸	34	3.07	.778		
	대졸	149	3.17	.569		
	대학원이상	4	2.67	.136		
효과성	고졸이하	27	3.73	.706	.865	.460
	전문대졸	40	3.80	.564		
	대졸	161	3.67	.554		
	대학원이상	4	3.45	.526		
지지도	고졸이하	27	3.84	.475	1.934	.125
	전문대졸	40	4.13	.554		
	대졸	161	3.98	.531		
	대학원이상	4	3.75	.957		

4) 근무기간에 따른 차이

근무기간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분석결과 참여태도(F=3.391, p=.006), 지지도(F=2.432, p=.036)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참여태도는 20년 이상 3.58점, 3년 이상~5년 미만 3.20점, 5년 이상~10년 미만 3.18점, 10년 이상~20년 미만 3.07점, 1년 이상~3년 미만 3.01점, 1년 미만 2.9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지도는 20년 이상 4.19점, 10년 이상~20년 미만 4.04점, 3년 이상~5년 미만 4.01점, 1년 미만 4.00점, 5년 이상~10년 미만 3.91점, 1년 이상~3년 미만 3.81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근무기간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 검증

항목	근무기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참여태도	1년 미만	16	2.98	.520	3.391	.006**
	1년 이상~3년 미만	38	3.01	.833		
	3년 이상~5년 미만	24	3.20	.608		
	5년 이상~10년 미만	45	3.18	.698		
	10년 이상~20년 미만	51	3.07	.702		
	20년 이상	37	3.58	.680		
만족도	1년 미만	16	3.27	.438	.411	.841
	1년 이상~3년 미만	38	3.14	.661		
	3년 이상~5년 미만	24	3.19	.640		
	5년 이상~10년 미만	45	3.10	.577		
	10년 이상~20년 미만	51	3.09	.645		
	20년 이상	37	3.22	.617		
효과성	1년 미만	22	3.83	.517	.522	.759
	1년 이상~3년 미만	44	3.65	.669		
	3년 이상~5년 미만	25	3.78	.549		
	5년 이상~10년 미만	46	3.65	.492		
	10년 이상~20년 미만	56	3.66	.660		
	20년 이상	39	3.72	.467		
지지도	1년 미만	22	4.00	.325	2.432	.036*
	1년 이상~3년 미만	44	3.81	.628		
	3년 이상~5년 미만	25	4.01	.391		
	5년 이상~10년 미만	46	3.91	.574		
	10년 이상~20년 미만	56	4.04	.536		
	20년 이상	39	4.19	.523		

*p<.05, **p<.01

5)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분석결과 참여태도(F=3.224, p=.008), 만족도(F=2.308, p=.046)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참여태도는 8천 만원 이상~1억원 미만 3.51점, 1억원 이상 3.48점, 6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3.26점,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3.08점, 4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3.07점, 2천만원 미만 2.50점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역시 8천 만원 이상~1억원 미만 3.38점, 1억원 이상 3.15점,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3.28점, 6천만원 이상~8천만원 이상 3.03점, 4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3.02점, 2천만원 미만 2.97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 검증

항목	소득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참여태도	2천만원 미만	5	2.50	.919	3.224	.008**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59	3.08	.679		
	4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67	3.07	.698		
	6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40	3.26	.729		
	8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7	3.51	.674		
	1억원 이상	13	3.48	.739		
만족도	2천만원 미만	5	2.97	.431	2.308	.046*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59	3.28	.583		
	4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67	3.02	.666		
	6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40	3.03	.496		
	8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7	3.38	.595		
	1억원 이상	13	3.15	.689		
효과성	2천만원 미만	7	3.89	.227	.878	.497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71	3.75	.630		
	4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72	3.64	.534		
	6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41	3.58	.516		
	8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8	3.77	.620		
	1억원 이상	13	3.72	.666		
지지도	2천만원 미만	7	3.81	.262	2.168	.059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71	3.91	.535		
	4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72	3.94	.444		
	6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41	4.01	.665		
	8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8	4.24	.520		
	1억원 이상	13	4.18	.633		

*p<.05, **p<.01

6) 자원봉사·기부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봉사활동·기부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분석결과 참여태도($F=3.099$, $p=.002$), 지지도($F=2.736$, $p=.007$)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참여태도는 봉사활동·기부 경험이 있는 경우가 3.28점으로 없는 경우 2.96점보다 높았고, 지지도는 봉사활동·기부 경험이 있는 경우가 4.06점으로 봉사활동·기부 경험이 없는 경우 3.8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4> 자원봉사·기부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 검증

항목	자원봉사·기부 경험 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참여태도	있다	144	3.28	.700	3.099	.002**
	없다	67	2.96	.721		
만족도	있다	144	3.19	.592	1.362	.175
	없다	67	3.06	.647		
효과성	있다	155	3.69	.571	-.153	.897
	없다	77	3.70	.575		
지지도	있다	155	4.06	.550	2.736	.007**
	없다	77	3.85	.494		

** $p<.01$

7)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에 따른 차이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분석결과 참여태도($F=6.275$ $p=.000$), 지지도($F=4.276$, $p=.003$)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참여태도는 10년 이상 3.69점, 1년 이상~3년 미만 3.36점, 3년 이상~5년 미만 3.27점, 5년 이상~10년 미만 3.15점, 1년 미만 2.8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지도는 10년 이상 4.38점, 5년 이상~10년 미만 4.15점, 3년 이상~5년 미만 4.01점, 1년 이상~3년 미만 및 1년 미만 3.92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 검증

항목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참여 태도	1년 미만	30	2.87	.608	6.275	.000***
	1년 이상~3년 미만	38	3.36	.625		
	3년 이상~5년 미만	27	3.27	.672		
	5년 이상~10년 미만	18	3.15	.601		
	10년 이상	31	3.69	.739		
만족도	1년 미만	30	3.12	.513	1.940	.107
	1년 이상~3년 미만	38	3.07	.607		
	3년 이상~5년 미만	27	3.18	.551		
	5년 이상~10년 미만	18	3.15	.571		
	10년 이상	31	3.44	.652		
효과성	1년 미만	35	3.59	.566	1.080	.368
	1년 이상~3년 미만	42	3.64	.520		
	3년 이상~5년 미만	29	3.66	.510		
	5년 이상~10년 미만	18	3.74	.702		
	10년 이상	31	3.86	.609		
지지도	1년 미만	35	3.92	.505	4.276	.003**
	1년 이상~3년 미만	42	3.92	.583		
	3년 이상~5년 미만	29	4.01	.508		
	5년 이상~10년 미만	18	4.15	.597		
	10년 이상	31	4.38	.445		

** $p<.01$, *** $p<.001$

8) 자원봉사·기부 현재 지속 여부에 따른 차이

자원봉사·기부 현재 지속 여부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분석결과 참여태도($F=4.023$, $p=.000$), 지지도($F=3.504$,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개인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가 3.42점으로 경험이 없는 경우 2.92점보다 높았다. 지지도 역시 경험이 있는 경우가 4.15점으로 경험이 없는 경우 3.82점보다 높았다.

<표 26> 자원봉사·기부 현재 지속 여부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 검증

항목	자원봉사·기부 현재 지속 여부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참여 태도	있다	105	3.42	.662	4.023	.000***
	없다	39	2.92	.677		
만족도	있다	105	3.23	.608	1.586	.115
	없다	39	3.06	.532		
효과성	있다	110	3.73	.578	1.559	.121
	없다	45	3.58	.543		
지지도	있다	110	4.15	.525	3.504	.001**
	없다	45	3.82	.544		

** $p<.01$, *** $p<.001$

4.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의식 비교

1)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분석 결과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 복지비용 부담 의향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성별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 검증

항목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남성	110	3.03	.611	1.884	.061
	여성	122	2.88	.563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	남성	110	3.76	.585	-1.217	.225
	여성	122	3.86	.599		
복지비용 부담 의향	남성	110	3.56	.769	1.690	.092
	여성	122	3.39	.734		

2) 연령에 따른 차이

연령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분석 결과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 복지비용 부담 의향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연령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 검증

항목	연령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19세~29세	46	2.92	.451	1.053	.370
	30세~39세	98	2.91	.647		
	40세~49세	60	2.95	.605		
	50세~59세	28	3.13	.533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	19세~29세	46	3.84	.652	.101	.960
	30세~39세	98	3.79	.588		
	40세~49세	60	3.82	.543		
	50세~59세	28	3.82	.639		
복지비용 부담 의향	19세~29세	46	3.34	.676	2.640	.050
	30세~39세	98	3.41	.743		
	40세~49세	60	3.51	.738		
	50세~59세	28	3.81	.877		

3)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교육수준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분석 결과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 복지비용 부담 의향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교육수준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 검증

항목	교육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고졸이하	27	3.00	.652	.708	.548
	전문대졸	40	2.99	.623		
	대졸	161	2.92	.573		
	대학원이상	4	3.30	.476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	고졸이하	27	3.88	.579	.367	.777
	전문대졸	40	3.86	.473		
	대졸	161	3.79	.628		
	대학원이상	4	3.93	.287		
복지비용 부담 의향	고졸이하	27	3.41	.656	.880	.452
	전문대졸	40	3.54	.644		
	대졸	161	3.45	.796		
	대학원이상	4	4.00	.609		

4) 근무기간에 따른 차이

근무기간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0>과 같다. 분석 결과 복지비용 부담 의향(F=2.600, p=.026)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복지비용 부담 의향은 20년 이상 3.71점, 5년 이상~10년 미만 3.57점, 10년 이상~20년 미만 3.52점, 3년 이상~5년 미만 3.40점, 1년 미만 3.39점, 1년 이상~3년 미만 3.17 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30> 근무기간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 검증

항목	근무기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1년 미만	22	2.86	.344	1.472	.200
	1년 이상~3년 미만	44	2.80	.490		
	3년 이상~5년 미만	25	3.03	.606		
	5년 이상~10년 미만	46	3.00	.754		
	10년 이상~20년 미만	56	2.91	.623		
	20년 이상	39	3.11	.491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	1년 미만	22	3.57	.644	1.199	.311
	1년 이상~3년 미만	44	3.86	.607		
	3년 이상~5년 미만	25	3.76	.418		
	5년 이상~10년 미만	46	3.90	.628		
	10년 이상~20년 미만	56	3.77	.605		
	20년 이상	39	3.89	.572		
복지비용 부담 의향	1년 미만	22	3.39	.597	2.600	.026*
	1년 이상~3년 미만	44	3.17	.710		
	3년 이상~5년 미만	25	3.40	.638		
	5년 이상~10년 미만	46	3.57	.729		
	10년 이상~20년 미만	56	3.52	.831		
	20년 이상	39	3.71	.784		

*p<.05

5)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분석 결과 복지비용 부담 의향(F=2.260, p=.049)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복지비용 부담 의향은 8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3.71점, 6천만원 이상~8천 만원 미만 3.70점, 1억원 이상 3.54점, 2천만원 미만 3.52점, 4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3.38점,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3.31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 검증

항목	소득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복지 정책 에 대한 견해	2천만원 미만	7	2.80	.332	1.336	.250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71	2.90	.543		
	4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72	2.87	.596		
	6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41	3.08	.632		
	8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8	3.03	.587		
1억원 이상	13	3.18	.711			
공공 복지 확대 지지 도	2천만원 미만	7	3.99	.790	.193	.965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71	3.81	.560		
	4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72	3.80	.616		
	6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41	3.78	.669		
	8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8	3.84	.580		
1억원 이상	13	3.88	.317			
복지 비용 부담 의향	2천만원 미만	7	3.52	.742	2.260	.049*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71	3.31	.643		
	4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72	3.38	.789		
	6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41	3.70	.774		
	8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8	3.71	.757		
1억원 이상	13	3.54	.877			

*p<.05

6) 자원봉사·기부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자원봉사·기부 경험 유/무에 따른 복지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분석 결과 복지비용 부담 의향($t=2.272$, $p=.024$)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원봉사·기부 경험이 있는 경우가 3.55점으로 자원봉사·기부 경험이 없는 경우 3.3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2> 자원봉사·기부 경험 유/무에 따른 복지인식 차이 검증

항목	자원봉사·기부 경험 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있다	155	2.98	.603	1.133	.259
	없다	77	2.89	.558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	있다	155	3.85	.570	1.509	.133
	없다	77	3.73	.633		
복지비용 부담 의향	있다	155	3.55	.747	2.272	.024*
	없다	77	3.31	.748		

* $p<.05$

7)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에 따른 차이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분석 결과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 복지비용 부담 의향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 검증

항목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1년 미만	35	2.91	.538	.307	.873
	1년 이상~3년 미만	42	2.99	.611		
	3년 이상~5년 미만	29	2.96	.695		
	5년 이상~10년 미만	18	3.09	.749		
	10년 이상	31	3.00	.497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	1년 미만	35	3.82	.616	.130	.971
	1년 이상~3년 미만	42	3.89	.573		
	3년 이상~5년 미만	29	3.89	.565		
	5년 이상~10년 미만	18	3.83	.664		
	10년 이상	31	3.82	.481		
복지비용 부담 의향	1년 미만	35	3.50	.591	.080	.988
	1년 이상~3년 미만	42	3.54	.786		
	3년 이상~5년 미만	29	3.61	.598		
	5년 이상~10년 미만	18	3.54	.864		
	10년 이상	31	3.56	.929		

8) 자원봉사·기부 현재 지속 여부 따른 차이

자원봉사·기부 현재 지속 여부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분석 결과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 복지비용 부담 의향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자원봉사·기부 현재 지속 여부에 따른 복지의식 인식 차이 검증

항목	자원봉사·기부 현재 지속 여부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있다	110	2.99	.629	.205	.838
	없다	45	2.96	.542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	있다	110	3.87	.569	.552	.582
	없다	45	3.81	.576		
복지비용 부담 의향	있다	110	3.57	.759	.870	.580
	없다	45	3.50	.723		

5.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5>와 같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 값이 0.9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회귀분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이학식 외, 2011) 본 연구의 상관성은 .692 이하의 결과로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수는 사회공헌활동 인식의 세부요인 중 사회공헌활동 참여 유/무를 제외한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간, 참여횟수, 참여시간, 참여태도, 만족도, 효과성, 지지도로 설정하였고 복지인식의 세부요인으로는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정책 견해),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공공복지), 복지비용 부담 의향(비용부담)으로 설정했다.

<표 35>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구분	사회공헌활동 인식							복지인식		
	참여기간	참여횟수	참여시간	참여태도	만족도	효과성	지지도	정책견해	공공복지	비용부담
사회 공헌 활동 인식	참여기간	1								
	참여횟수	.204**	1							
	참여시간	.262**	.692**	1						
	참여태도	.318**	.398**	.471**	1					
	만족도	.047	.205**	.286**	.526**	1				
	효과성	.040	.189**	.214**	.390**	.532**	1			
	지지도	.155*	.185**	.257**	.452**	.346**	.388**	1		
복지 인식	정책견해	.124	.046	.041	.244**	.157*	.271**	.139*	1	
	공공복지	.043	.079	.011	.084	.108	.141*	.171**	.103	1
	비용부담	.195**	.036	.059	.188**	.149*	.122	.287**	.230**	.494**

*p<.05, **p<.01

각 세부요인별로 비교해보면 사회공헌활동 인식 하위변인들 간에는 참여시간과 참여횟수($r=.692, p<.01$)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효과성과 만족도($r=.532, p<.01$), 만족도와 참여태도($r=.526, p<.01$), 참여시간과 참여태도($r=.471, p<.01$), 지지도와 참여태도($r=.452, p<.01$)도 상관관계가 높았다. 복지의식의 하위변인들 간에는 복지비용 부담과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r=.494, p<.01$)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복지비용 부담 의향과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r=.230, p<.01$)도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공헌활동 인식과 복지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공헌활동 인식의 참여기간 요인은 복지의식의 복지비용 부담 의향($r=.195,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참여횟수, 참여시간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공헌활동 인식의 참여태도 요인은 복지의식의 세부요인 중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r=.244, p<.01$), 복지비용 부담 의향($r=.188, p<.01$)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의 만족도 요인은 복지비용 부담 의향($r=.157, p<.05$),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r=.149, p<.05$)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의 효과성 요인은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r=.271, p<.01$),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r=.141, p<.05$)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졌다. 사회공헌활동의 지지도 요인은 복지비용 부담 의향($r=.287, p<.01$),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r=.171, p<.01$),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r=.139, p<.05$)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6.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공헌활동 인식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금융기업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공헌활동 인식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명목척도로 측정된 변수에 대해서는 더미(dummy)변수로 처리하였고 회귀분석은 복지의식의 세부요인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 복지비용 부담 의향 별로 각각 실행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사회공헌활동인식의 세부요인이 복지의식에 대한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복지의식에 대해서는 공차한계 최저 .283에서 최고 .834 범위에 있고 VIF는 최저 1.199에서 최고 3.536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가 .01 이하이고 VIF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박용권, 2010) 복지의식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 복지정책 견해에 대한 영향

<표 36>은 복지정책 견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F=2.515$, $p<.01$), 21.4%의 분산설명력을 가졌다. 사회공헌활동의식의 세부요인 중에서 사회공헌활동 참여태도($t=2.466$, $p<.05$), 사회공헌활동 효과성($t=3.027$, $p<.01$)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기업 종사자들이 긍정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태도와 사회공헌활동의 효과성에 대하여 높게 평가할수록 복지정책 견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6> 복지정책 견해에 대한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일반적 특성	성별	.103	.110	.083	.936	
	연령	-.011	.084	-.017	-.134	
	교육수준	.038	.083	.039	.453	
	근무기간	.020	.058	.050	.342	
	소득수준	.040	.064	.082	.624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	-.050	.046	-.116	-1.071	
	자원봉사·기부 현재 지속 여부	-.159	.135	-.115	-1.178	
	사회공헌활동 인식	참여기간	.026	.061	.060	.430
		참여횟수	-.034	.050	-.076	-.674
참여시간		-.026	.059	-.052	-.435	
참여태도		.244	.099	.277	2.466*	
만족도		-.063	.114	-.061	-.559	
	효과성	.331	.109	.312	3.027**	
	지지도	.044	.112	.039	.392	
상수		.963	.504		1.910	
R^2		<i>Adjusted R²</i>		<i>F</i>		
.214		.129		2.515**		

* $p<.05$, ** $p<.01$

- 주) 1) 성별: 남성(0), 여성(1)
 2) 현재 지속 여부: 없다(0), 있다(1)

2) 공공복지 확대 지지에 대한 영향

<표 37>은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는 금융기업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요인과 사회공헌활동 인식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7>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에 대한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일반적 특성	성별	-.154	.103	-.139	-1.500	
	연령	-.010	.079	-.016	-.124	
	교육수준	.114	.078	.129	1.456	
	근무기간	.074	.054	.209	1.369	
	소득수준	-.076	.060	-.174	-1.270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	-.081	.044	-.211	-1.870	
	자원봉사·기부 현재 지속 여부	-.062	.127	-.049	-.487	
	사회공헌활동 인식	참여기간	.068	.057	.173	1.188
		참여횟수	.038	.047	.094	.809
참여시간		-.103	.056	-.231	-1.855	
참여태도		.060	.093	.076	.648	
만족도		.028	.107	.030	.264	
효과성	.164	.103	.172	1.600		
지지도	.167	.105	.164	1.593		
상수		2.239	.473		4.731***	
R^2		<i>Adjusted R²</i>		<i>F</i>		
.151		.059		1.640		

주) 1) 성별: 남성(0), 여성(1)

2) 현재 지속 여부: 없다(0), 있다(1)

3) 복지비용 부담 의향에 대한 영향

<표 38>은 복지비용 부담 의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F=2.955, p<.01$), 24.3%의 분산설명력을 가졌다. 세부요인 중에서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t=-2.865, p<.01$)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간($t=2.313, p<.05$), 사회공헌활동 지지도($t=2.905, p<.01$)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비용 부담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은 짧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간은 길수록 복지비용 부담 의향에 대해 긍정적이기 때문에 금융기업 종사자의 개인 자원봉사·기부와 사회공헌활동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8> 복지비용 부담 의향에 대한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일반적 특성	성별	.110	.132	.073	.833
	연령	.196	.101	.243	1.947
	교육수준	.173	.100	.145	1.728
	근무기간	.018	.069	.037	.258
	소득수준	-.102	.076	-.173	-1.333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	-.160	.056	-.306	-2.865**
	자원봉사·기부 현재 지속 여부	-.167	.162	-.099	-1.035
	사회공헌활동 인식	참여기간	.169	.073	.317
참여횟수		-.031	.060	-.057	-.520
참여시간		-.027	.071	-.045	-.387
참여태도		.071	.119	.066	.597
만족도		.031	.136	.025	.230
효과성		.148	.131	.115	1.132
지지도		.389	.134	.283	2.905**
상수	.573	.605		.946	
R^2		<i>Adjusted R²</i>		<i>F</i>	
.243		.161		2.955**	

* $p<.05$, ** $p<.01$

주) 1) 성별: 남성(0), 여성(1)

2) 현재 지속 여부: 없다(0), 있다(1)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금융기업 종사자들의 사회공헌활동 인식이 그들의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의 사회공헌활동 발전방향을 파악하여 향후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발전 방향과 내실화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틀을 마련하였고 제주지역 소재의 금융기업 중 4곳을 선정, 해당 금융기업의 제주지역 근무자 23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도구는 PASW Statistics 18를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F-검정(ANOVA,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제주지역 금융기업 종사자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상황을 살펴본 결과 조사자 가운데 211명(90.9%)이 참여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21명(10.1%)은 참여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하여 제주지역 금융기업 종사자 상당수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회공헌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참여기간, 참여횟수, 참여시간을 조사한 결과, 참여기간은 5년 미만 118명(56.0%), 5년 이상 93명(44.0%)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1년 간 사회공헌활동 참여횟수 및 참여시간을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 금융기업 종사자의 약 70%가 5회 미만, 10시간 미만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금융기업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사회공헌활동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의 연구문제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을 조사한 결과 연령, 근무기간, 소득수준, 자원봉사·기부 경험 유/무,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 자원봉사·기부 현재 지속 여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성별,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는 지지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대체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사회공헌활동 인식이 높았다. 근무기간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는 참여태도와 지지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참여태도와 지지도는 근무기간이 20년 이상 종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에서는 참여태도,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참여태도 및 만족도 모두 소득수준이 8천만원 이상 종사자가 8천만원 미만의 종사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원봉사·기부 경험 유/무,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차이는 모두 참여태도, 지지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사회공헌활동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사회공헌활동 인식이 가장 높았다. 또한 자원봉사·기부 현재 지속 여부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인식 역시 참여태도와 지지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현재 개인적으로 자원봉사·기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회공헌활동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금융기업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복지의식에 차이가 있는가?의 연구문제에 따른 복지의식을 비교한 결과는 근무기간, 소득수준, 자원봉사·기부 경험 유/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 자원봉사·기부 현재 지속 여부에 따른 복지의식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근무기간, 소득수준, 자원봉사·기부 경험 유/무 모두 복지의식의 복지비용 부담 의향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근무기간에 따른 복지의식은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의 경우 복지비용 부담 의향이 가장 높았고 근무기간 1년 이상~3년 미만의 경우 복지비용 부담 의향이 가장 낮았다.

소득수준은 복지비용 부담 의향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개의 소득구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었으며 연 소득 6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종사자가 복지의식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1억원 이상 및 2천만원 미만, 마지막으로 2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기부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복지비용 부담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중 근무기간, 소득수준, 자원봉사·기부 경험 유/무 3가지 세부요인만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나 선행연구에 따른 강인석(2016)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성별, 학력,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도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와 달리 근무기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넷째, 금융기업 종사자의 사회공헌활동 인식은 복지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는 사회공헌활동 참여태도, 만족도, 효과성, 지지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는 사회공헌활동 효과성, 지지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복지비용 부담 의향에 대해서는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간, 참여태도, 만족도, 지지도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금융기업 종사자의 복지의식에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 복지비용 부담 의향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에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공헌활동의 하위변인 중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효과성($\beta=.312$), 참여태도($\beta=.277$)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복지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비용 부담 의향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 특성의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beta=-.306$)과 사회공헌활동 인식의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간($\beta=.317$), 사회공헌활동 지지도($\beta=.283$)로부터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복지 확대 지지에 대한 인식에서는 일반적 특성 및 사회공헌활동 인식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복지 확대 지지도는 일반적 특성 및 사회공헌활동 인식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행연구 강인석(2016)의 연구 결과에서는 사회공헌활동 만족도와 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혀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강인석(2016)은 복지비용 부담 의향에 있어서도 사회공헌활동 만족도가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서는 사회공헌활동 만족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간, 사회공헌활동 지지도로부터 유의미한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업 종사자의 복지의식 향상과 관련하여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발전 방향 및 내실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복지의식의 하위 변인 중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참여태도와 효과성이 유의미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들 변인은 금융기업 종사자들의 긍정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태도와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공헌활동의 효과를 종사자가 직접 체감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업에서는 종사자들이 만족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수 참여자 보상, 업무시간 인정 등 제도적·시스템적 정비가 필요하며 사회공헌활동 진행과정 및 추진 결과 등을 사회공헌활동 참여 종사자들에게 공개하고 피드백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금융기업 종사자들 역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며 기업과 종사자가 함께 상생해 나가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복지의식의 하위 변인 중 복지비용 부담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간, 사회공헌활동 지지도가 유의미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들 변인을 통해 금융기업 종사자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간은 길수록, 사회공헌활동 지지도가 높을수록 복지비용 부담 의향이 증가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또한 개인 자원봉사·기부 참여기간은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자원봉사·기부활동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일원화하는 것 역시 필요한 과정임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강인석(201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시행의 확대는 종사자들의 복지의식 변화를 이끌고 이를 통해 복지 재원 마련의 가능성이 확대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자도 종사자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는 그들의 복지의식 중 복지비용 부담 의향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시행 확대에 관하여 참여횟수, 참여시간 등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성장에 집중한 사회공헌활동 전략이 수립되었을 때 종사자들의 복지의식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미래의 사회공헌활동 전략에는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공헌활동만이 종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사회공헌활동 지지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원봉사·기부활동은 사회공헌활동의 일부분이다. 개인적인 자원봉사·기부활동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종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공헌활동과 개인 자원봉사·기부활동을 일원화하거나 개인, 동호회, 가족 단위 등으로 실시되는 개인 자원봉사·기부활동을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포함시키는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금융기업 종사자의 복지의식 향상과 관련한 금융기업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금융기업 측면에서의 제언이다.

금융기업 종사자들이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공헌활동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조직 구성원들이 그들이 속한 조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을 금융기업이 종사자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즉,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종사자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과 태도를 전사적으로 공유하는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을 형식적인 기업의 책임으로 인식하거나 단순 정략 지표 등에 의한 평가를 지양하고 사회공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직원 대상 정기적 사회공헌활동 인식도 조사, 기업의 인사보상시스템에 사회공헌활동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 반영, 사회공헌전담 인력 충원 등 기업 사회공헌활동 운영시스템의 변화 및 정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금융기업 종사자 측면에서의 제언이다.

금융기업 종사자들은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의 단순 활동이 아니라 개인 성장의 기회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종사자 개인의 역량과 선호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직업과 재능을 통한 자아실현욕구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직장동료들 간에도 사회공헌활동에 참여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통해 긍정적인 사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며 종사자들은 신규 아이디어 제안, 사회공헌활동의 추진 방향 및 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측면에서의 제언이다.

금융기업은 지역사회·사회문제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경쟁 기업, 타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NGO 등과 연계한 협력적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병행 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사회공헌활동일지라도 지역사회에 부합하지 못하는 활동이거나 여러 기업에서 중복적으로 실시되는 활동들은 사회적 비난과 사회공헌활동 참여종사자들로부터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연계하여 사회공헌활동 공동위원회를 신설(가칭)하고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사회공헌활동기금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 사회공헌활동을 공동으로 기획·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단순 활동이 아니다. 기업, 임직원, 이해관계자 모두가 사회문제와 복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회적 활동이다. 이제까지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활동, 지역사회와의 공생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로 주로 정의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공헌활동 참여 종사자의 입장에서 재접근해 본다면 사회공헌활동은 기업 종사자들의 복지의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역사회 복지 향상은 물론 복지 국가 실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제주지역에 종사하는 금융기업 종사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금융기업 종사자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금융기업의 재정규모별 사회공헌활동 실시상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업의 재정규모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진 양적 연구로 양적 연구는 설문지의 틀 내에서 연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실제로 금융기업 종사자가 직장에서의 느끼는 사회공헌활동 인식과 복지의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도 유의미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점과 더 나아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경동(1992).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변화의 경험적 추적』. 서울: 박영사
- 박용권(2010). 『SPSS 사회복지자료분석』. 서울: 도서출판 신정
- 와타나베 카즈오(1996). 『기업의 사회공헌』. 삼성국제경영연구소(역). 서울: 21세기북스
- 이학식·임재훈(2011). 『SPSS 18.0 매뉴얼』. 서울: 집현재
- 최혁준(2010). 『존경받는 사회공헌 비난받는 사회공헌』. 도서출판 이안에

<자료>

- 은행연합회(2007). 2006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 _____ (2011). 2010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 _____ (2018). 2017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 전국경제인연합회(2018). 2018 주요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2011) ISO 26000 이행가이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2018). 2018 사회공헌백서.
- 한국복지패널(2016). 2016년도 11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부가조사(유형 5).

<국내문헌>

- 강인석(2016).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구성원들의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순(2014).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사회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상봉(2013).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적합성이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5). “기업 내부 구성원의 자원봉사동기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균(1994). “한국인의 복지의식.” 『서울대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6호 3호. pp. 121-167.
- 김상균·정원오(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25호 3호. pp. 1-33.
- 김연신(2000). “기업 자원봉사의 기능적 효과에 관한 연구: 삼성전자의 자원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환(2005). “사회책임활동과 기업평판의 관계에 관한 연구: 5개 업종, 10개 기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일수(2015). “기업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성과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영(2009). “은행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수(2006).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나(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2015). “중년기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특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2010). “소비자가 지각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균환·유태용(201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제26호 2호. pp. 195-218.
- 류만희·최영(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 (self-interest)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호 1호. pp. 191-210.
- 류진석(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4호. pp. 79-101.
- 문경원(201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철수(2004). 기업 PR 캠페인으로서의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연구: 국내외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광고학 연구』 제15권 5호. pp. 343-360
- 박문성(2016). “기업 임직원들의 사회봉사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각(2013). “금융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영(1997).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평가: 대학생 인지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민경(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범(2007).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종업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구원·진용주(2008).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유형이 기업 평판, 사회적 연결감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실증연구” 『광고학연구』 제19권 4호. pp. 149-163.
- 서대석(2013).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제33권. pp. 8-38.
- 서문식·안진우(2008). “서비스산업에서의 고객참여 측정도구 개발.” 『마케팅연구』 제23권 4호. pp. 105-135.
- 손유진(2016). “복지정책 선호 결정요인 분석: 정치적 성향과 빈곤 책임 의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현(2016).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간 연계활동과 지역발전성장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옥경(2002). “공공복지와 민간복지활동의 관계에 관한 소연구: 공공복지인식이 개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9권 2호. pp. 61-84.

- 오단이·김사현(2012). “공공복지와 민간복지활동의 관계에 관한 소연구: 공공복지 인식이 개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9권 2호. pp. 61-84.
- 오양래(2015). “복지의식과 기부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아영(2000). “복지의식에 관한 사회계층간 비교 연구.” 가톨릭대학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숙(2011).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CSR)이 기업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농협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주(2015). “공기업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 연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부영(2013).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 동기와 몰입경험이 복지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균(2002).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국가의 복지책임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6권 2호. pp. 8-24.
- 이성록(2002). “자원봉사 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동인의 영향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소리(2017). “삶의 만족도가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복지의식의 조절변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아름·김사현(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논문발표집』 2010년 제6호. pp. 234-264.
- 이영주(2011). “직장인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정(2016). “자원봉사활동과 청소년 복지의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제7권 5호. pp. 475-500.
- 이주희(2017). “복지인식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 비영리기관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중섭(200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6권 4호, pp. 73-99.
- 이창은(2003). “대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의식, 자아존중감,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동남보건대학』 제21권 1호. pp. 167-175.
- 이현주·강상경·김수완·이선우·전지현(2013).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19 연구보고서. p. 248.
- 이흥기·박영준(2015). “가구의 경제수준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 48호. pp. 362-397.
- 이홍일(2009). “기업 사회공헌의 전략적 특성 및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효정(2012). “기업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유형에 따른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우(2018). “공공기관의 구성원의 사회적 책임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회공헌 유형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원우(2007). “공기업의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비교를 통한 신뢰도 향상 방안 연구: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사회공헌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주현(2013). “한국사회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계급, 자기이해, 이념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구현(1996).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 『연세경영연구』 제33권 2호. pp. 233-251.
- 정무성(2004).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및 욕구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1권 1호. pp. 361-383.
- 정세희·문영규(2015).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 pp. 23-46.
- 정윤석(2006). “기업이미지와 사회공헌활동의 적합도 모형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숙(2007). “대학사회봉사와 지역사회 청소년 봉사인식 개선을 위한 복지교육.” 『홀리스틱교육연구』 제11권 1호. pp. 133-153.
- 조한숙(2013).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서부발전(주) 태안 발전본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은선·백정미(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4권 0호. pp. 203-225.
- 채승희(2002). “사회봉사활동이 대학생들의 의식구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존중감, 도덕성, 사회복지의식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균·류진석(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제16호. pp. 223-254.
- 최유균(2006). “우정사업 사회공헌활동 모델개발 연구: 내부자적 시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라(2009). “노인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우(2013). “기업 자원봉사활동이 임직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민희(2018). “시민의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 영향 요인 연구: 복지인식 대 삶의 만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보람·김환희(2010).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부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7권 4호. pp. 125-154.

<외국문헌>

- Carroll, A. B(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 34, pp. 39-48.
- Bowen, H. R(1953).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per & Row.

- Coughlin, R.(1980). *Ideology, Public Opinion, and Welfare Policy*, Berkel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 Sethi, S. P(1979). “A Conceptual Framework for Environmental Analysis: Social Issue and Evaluation of Business Response Patter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s* 4(1), pp. 63-74.
- Stroup, M. A., R. L. Neubert and J. W. Aderson(1987). “Doing Good, Doing Better: Two Views of Social Responsibility”, *Business Horizons* 30(2), pp.22-25.
- McGuire, J. W.(1963). *Business and Society*, New York: McGraw-hill.
- Kotler, P.(2006). *Marketing Management*, New Jersey: Prentice Hall.
- Porter, M. E., and M. R. Kramer(2006), “Strategy and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84(12), pp. 78-93.
- Porter, M. E., and M. R. Kramer(2011).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1/2), pp. 62-77.
- Taylor-Gooby, P.(1985). “Attitudes of Welfare”, *Journal of Social Policy* 14(1), pp. 73-81.
- Wilson, A.(2000). *Making community investment work*, ILO(www.ilo.org).
- Wulfson, M.(2001). “The Ethic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Philanthropic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2(1/2), pp. 135-145.

설 문 지

구분코드명: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금융기업 종사자의 사회공헌활동 인식과 복지의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이 복지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향후 사회공헌활동 발전 방향과 내실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어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임해주심에 감사말씀을 드리며 솔직하고 정확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7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송 양 신

I. 다음 각 항목들은 개인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9세~29세 ② 30세~39세 ③ 40세~49세
④ 50세~59세 ⑤ 60세 이상

3. 교육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4. 현재 직장에서의 총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10년 미만 ⑤ 10년 이상~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5. 연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2천만원 미만 ②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③ 4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④ 6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⑤ 8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⑥ 1억원 이상

6. 귀하께서는 직장에서 실시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7번 문항부터 작성 바랍니다.)

6-1.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얼마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하하셨습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6-2. 귀하께서는 지금도 직장 사회공헌활동과 관계없이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II. 다음 각 항목들은 사회공헌활동 참여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귀하께서는 직장에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10-1번 문항부터 작성 바랍니다.)

7-1. 귀하께서는 직장에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7-2. 귀하께서는 최근 1년간 직장에서 사회공헌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 ① 1~2회 ② 3~4회 ③ 5~6회 ④ 7회~9회 ⑤ 10회 이상

7-3. 귀하께서는 최근 1년간 직장에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5시간 미만 ② 5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③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④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⑤ 30시간 이상

III. 다음은 귀하의 사회공헌활동 참여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1	나는 사회공헌활동의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8-2	나는 사회공헌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8-3	나는 우리 회사에서 실시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4	나는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활동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 각 항목들은 사회공헌활동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1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개인적인 삶의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2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좋았다.	①	②	③	④	⑤
9-3	동료 및 주변인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격려해주어 자부심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9-4	지역사회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5	사회공헌활동 경험을 통해 자원봉사 교육 등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9-6	사회공헌활동으로 포상 및 인사고과 등 실적을 보상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 각 항목들은 사회공헌활동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1	사회공헌활동 참여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10-2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대상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3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통해 타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4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0-5	사회공헌활동은 가치 있는 일이며 사회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VI. 다음 각 항목들은 사회공헌활동 지지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 귀하께서는 직장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적극 참여할 것이다.
- ②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계속 참여할 것이다.
- ③ 업무와 관련 있는 사회공헌활동에만 참여할 것이다.
- ④ 별로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 ⑤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12.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불필요하다 ⑤ 매우 불필요하다

13. 귀하께서 기관의 총 관리자가 된다면,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겠습니까?

- ①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② 적절히 시행한다
- ③ 생각해본다 ④ 시행하지 않는다 ⑤ 절대 시행하지 않는다

VII. 다음 각 항목들은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매우 못하고 있다	잘 못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잘하고 있는편 이다	매우 잘하고 있다
14-1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14-2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①	②	③	④	⑤
14-3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14-4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14-5	빈곤 예방 및 감소	①	②	③	④	⑤
14-6	실업에 대한 대응	①	②	③	④	⑤
14-7	성평등 수준 향상	①	②	③	④	⑤
14-8	여성 고용 확대	①	②	③	④	⑤
14-9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 거주 지원	①	②	③	④	⑤
14-10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 실시	①	②	③	④	⑤

VIII. 다음 각 항목들은 공공복지 확대에 대한 지지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찬성 하지 않음	약간 찬성 하지 않음	보 통	약간 찬성	매우 찬성
15-1	무상 의료 복지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15-2	무상 교육 복지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15-3	무상 보육 복지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15-4	무상 급식 복지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15-5	실업자 구제 복지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15-6	노인생계 및 요양지원 복지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15-7	장애인 생계 및 요양지원 복지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15-8	여성 고용 활성화 및 남녀고용평등 제도 확대	①	②	③	④	⑤
15-9	빈곤층 최저생활보장 확대	①	②	③	④	⑤
15-10	무주택자 및 하우스푸어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IX. 복지 확대에 따른 세금 증가 동의 및 복지비용 부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전혀 찬성 하지 않음	약간 찬성 하지 않음	보 통	약간 찬성	매우 찬성
16-1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6-2	사회복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세금을 더 납부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3	사회복지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세금을 더 납부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erception and Welfare Consciousness

- Focused on the Financial Companies' Workers in Jeju -

Yangshin Song

Supervised by Professor Jinyoung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financial companies worker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erception on their welfare consciousness and discuss the directions for futur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financial companies and thereby, explore some practical ways to ensure thei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futur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the questionnaire survey. This study sampled 4 financial companies with 250 or more workers in Jeju. Thus, a total of 232 financial companies workers were sampled to be subject to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for frequency analysis, t-test, F-test (ANOVA and one-way ANOVA),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s between subjec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erception and their welfare consciousness, it was found that their view of the corporate social welfare poli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ir attitude towards the participation i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atisfaction with their participation, effectiveness of their

participation and support to their participation, and that their support to an expanded social welfare was also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effectiveness of and support to thei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subjects' intention to bear the welfare cost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eriod of, attitude towards, satisfaction with and support to participation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econdly,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of subjects' welfare consciousness, it was found that their views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and their recognition of the tax increase for the burden of welfare were significant.

Any demographic variable was not found significant to affect subjects' view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but such sub-variables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effectiveness of and attitudes towards participation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ir welfare consciousness.

On the other hand, subjects' recognition of tax increase for burden of welfare was found to be affected negatively by the period of volunteering and donation, while being affected positively b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erception, period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upport to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owever, their support to increased welfare services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depending on their demographic variables and social responsibility perceptio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ways as follows to help the financial companies workers enhance thei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erception and the financial companies reinforce thei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for the financial companies, they are urged to concentrate their efforts on the creation of a new culture for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ts qualitative growth to encourage their workers to participate i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voluntarily.

As for financial companies workers, they should endeavor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and the co-workers should be induced to positively support and encourage the participants i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Lastly, the financial companies need to be networked with competitor companies, other companies, public organizations,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NGOs, etc., to solve the community and social problems efficiently.